

# 초점 현상과 담화 영역

위혜경\*†

한국사이버대학교

Hae-Kyung Wee. 2004. Focus and Discourse Domain. *Language and Information 8.1*, 1-26. This paper investigates the nature of the discourse domain involved with focus sentences. The major theories of focus including Roothian Alternative Semantics are critically reviewed: Alternative Semantics takes a contradictory attitude toward the truth conditional aspect of free focus. The truth conditional differences are treated as a pragmatic inference, while they are captured by the semantic mechanism, that is, the alternative sets generated by focus constructions. In addition, the alternative sets are ad hoc since they are generated only for focus constructions. This paper attempts to show that the alternative sets introduced by foci in the framework of Alternative Semantics are neither necessary nor sufficient for an analysis of focus. It is argued that the domain sets simply provided by the model itself suffices for a proper analysis of focus constructions. (Korea Cyber University)

**Key words:** 초점(focus), 담화 영역(domain of discourse), 대체 집합(alternative set), 양화 영역(domain of quantification), 완전성(exhaustivity), 격자 구조(lattice structure)

## 1. 머리말

의미론적 초점 현상의 논의는 필연적으로 담화 모형 (discourse model)에서의 영역(domain)과 결부된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즉, 초점 현상은 주어진 담화 모형의 영역의 집합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이용하여 어떤 연산 작용 (computation)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A: 누가 과자를 먹었니? B: [민호가<sub>F</sub> 과자를 먹었어. 라는 담화에서 몇 명의 아이들, 예를 들어, {민호, 철수, 수미}의 집합이 담화 영역(discourse domain)으로 주어졌다고 가정할 때, 초점은 이 세 명의 구성원들을 고려하게 된다. 이러한 입장은 다양한 종류의 초점 이론적 틀에서 모두 공통되게

\* 120-749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공학원 한국사이버대학교 실용영어학부,  
E-mail: hkwee@mail.kcu.ac.kr, FAX: +82-2-2102-2399

† 이 논문은 한국언어학회 2002년 겨울 연구회에서 주제 발표 형식으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결과이다. 상세한 논평과 제안을 해준 세 명의 논평자에게 감사드린다. 논평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하였으나 아직 남아 있는 미흡함은 오직 저자의 책임이다.

가정되고 있다. 그런데, 그 연산 작용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초점 이론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 이 문제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논의하고 초점 해석을 위한 적절한 영역 집합 (domain set)에 대한 조건과 그 구조를 밝히려 한다. 특히 대체 의미론에서 초점 문장의 영역으로 설정하는 대체 집합이 초점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으며, 그 대신 모형 의미론에서 모형의 일부로 도입되는 일반적인 담화 영역 집합만 가지고도 초점 현상을 설명함으로써 초점의 분석을 위해 의미부를 복잡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절에서는 대체 의미론을 비롯한 기존 주요 이론의 초점 분석 방법의 개요를 소개하고 대체 의미론이 상정하는 영역 집합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한다. 대체 의미론의 영역 집합으로는 자유 초점 구문에서 발견되는 진리 조건적 영향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어렵고, 연산과정에 과도한 복잡성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논의한다. 3절에서는 기존 초점 이론에 대한 대안으로서, 초점은 이미 전제된 조응사에 대한 정체 구현의 기능이라는 주장을 하는 Wee (1999, 2001)의 분석을 간단히 소개하고, 4절에서는 3절에서 소개한 초점 분석 방법과 Link (1983)의 격자 구조(lattice structure)로 이루어진 담화 영역의 구조를 사용해 2절에서 관찰한 초점이 진리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초점으로 인한 완전성의 의미, 그리고 수에 초점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정확히’의 의미를 설명해 보인다. 5절은 결론과 요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 2. 대체 의미론 (Alternative Semantics)

이 절에서는 기존에 널리 알려진 초점 이론인 Rooth (1985, 1992) 등의 대체 의미론과 Krifka (1992) 등의 구조화 의미론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문제점을 논한다.

먼저,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면, 초점 위치의 변화에 따라 각 문장 간에 생기는 의미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1) a. John introduced BILL to Sue.

b. John introduced Bill to SUE.

c. JOHN introduced Bill to Sue.

(대문자 부분은 음성적으로 두드러지게 발화되어 초점을 표시한다.)

Rooth(1985, 1992)가 제안한 초점을 위한 대체 의미론(alternative semantics)에 의하면 문장은 두 개의 다른 모형 의미론적 해석을 받게 된다. 하나는 일반 의미치 (ordinary semantic value)이고 다른 하나는 초점 의미치 (focus semantic value)이고 이는 각각  $[ ]^0$ ,  $[ ]^F$ 로 표시된다. 초점 의미치는 각 초점을 담화 영역에서 같은 의미적 유형의 대체 원소들로 대치시켜서 얻어진 모든 명제들의 집합이다. 예를 들어, (1a)의 초점 의미치는 (2)와 같다.

(2)  $[(1a)]^F = \{ \text{the proposition that John introduced } d \text{ to Sue: } d \in D \}$

- (3)  $[(1a)]^F = \{[\text{John introduced John to Sue}]^0, [\text{John introduced Bill to Sue}]^0, [\text{John introduced Sue to Sue}]^0, [\text{John introduced Mary to Sue}]^0\}$

모형에서  $D = \{\text{John, Bill, Sue, Mary}\}$ 와 같은 영역이 주어졌다면, (2)는 (3)의 결과를 얻는다. 마찬가지로 (1b)와 (1c)의 초점 의미치는 다음과 같게 된다.

- (4)  $[(1b)]^F = \{\text{the proposition that John introduced Bill to } d: d \in D\}$

- (5)  $[(1c)]^F = \{\text{the proposition that John introduced } d_1 \text{ to } d_2: d_1, d_2 \in D\}^1$

Rooth에 따르면, 초점의 영향은 (3-5)와 같은 초점 문장이 발생할 수 있는 문맥을 선택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즉, (3-5)와 같은 명제의 집합이 발생한 문맥에서 (1a-c)의 발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Wh-의문문의 의미치를 (3-5)와 같은 가능한 대답으로서의 명제들의 집합과 동일시하는 Hamblin (1973)의 이론을 받아들이면 (1a-c)를 대답으로 받을 수 있는 wh-의문문들, 즉, Who did John introduce to Sue?, Whom did John introduce Bill to?, Who introduced Bill to Sue?가 각각 (1a-c)의 초점 의미치와 같은 값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 의문문들은 각 초점 문장의 문맥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고, 이 대체 의미론은 초점 구문이 발생할 수 있는 적절한 문맥을 선별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Rooth는 자신의 이론을 영역 선택 (domain selection) 이론이라고 일컫는다. 즉, (1a-c)의 문장들은 각 문장의 초점 의미치 중의 한 원소이고 이 초점 의미치는 문장이 발생하는 문맥을 선별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초점 의미치와 일치하는 문맥에서 발생한 초점 문장은 적정 문장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 적정 문장으로서 화용적으로 부적절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과 답변을 비 적정 담화로 판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6) A: Who did John introduce to Sue?

B: John introduced Bill to [SUE]F.

(6B)의 발화의 내용은 ‘(4)와 같은 명제의 집합인 영역 중에서 (6B)의 명제가 참이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여기서 밑줄 그은 부분만이 초점에 의해 생긴 부분이고 이 부분이 하는 일은 위의 (6A)의 문맥이 이 밑줄 그은 부분, ‘(4)와 같은 명제의 집합인 영역 중에서’, 와 일치하는지를 조사하는 일을 하는 데에 그친다. 만약 초점 의미치를 고려하지 않고 문장의 발화 의미를 본다면 (4)와 같은 영역 집합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고 단순히 ‘문장 (6B)는 참이다’라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6B)의 문장과 초점의 위치가 다른 (1a)의 문장은 서로 문장 내적인 의미는 똑같은 명제인 것이다. 따라서 초점이 하는 일은 (4)와 같은 영역 집합인 초점 의미치 혹은 문맥에 따른 그의 부분 집합을 설정해 주는 일일 뿐이고 나머지는 일반 명제의 의미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대체 의미론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으로 정리될 수 있다.

<sup>1</sup> 대체 의미론이 대체 집합을 얻게 되는 알고리즘과 자세한 의미부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또 본 논문의 주제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지 않겠다.

## (7) a. 초점의 진리 조건적 영향:

초점은 각 문장이 발생하는 문맥을 체크해 주는 역할만을 하고 문장 자체의 순수 의미 (semantics proper)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본다. (only나 always등의 소위 초점사가 동반하지 않는 한.)

## b. 초점의 영역 집합:

(i) 이 이론에서의 양화 영역 (quantificational domain)은 일반적으로 모형 (model)에서 주어지는 영역(domain)과 표현의 가능 의미치와는 별도로 초점에 의해 발생된 대체 집합으로서, 이는 초점 문장의 의미의 일부로 도입된다. 즉, (4), (5)와 같은 문장의 집합이 초점 문장 자체의 의미의 일부로서 초점만을 위해 도입되는 영역 집합이고, 모형에서 주어지는 영역 집합과는 별도로 생성된다.

(ii) 초점 받는 구에 대해서만 대체 집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큰 통사 범주의 대체 집합들도 도입해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의 (1b)의 경우는 Sue에 대한 대체 집합뿐만 아니라, 문장의 대체 집합을 생성해서 고려해야 한다.

이제부터 이 두 가지 특징이 초점 문장을 설명하는 데 어떤 문제점을 갖는지 보기로 한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인 (7a)부터 검토하자.

## 2.1 초점 문장의 진리 조건

논의된 대로 대체 의미론 등의 주요 초점 이론들은 초점 구문이 소위 초점사(focalizer)와 연계되어 나타나는 (8a)와 같은 경우와 그 밖에 특수한 구문으로서 양화 부사, 조동사, 이유 등의 의미가 초점 구문과 상호 작용하는 (8b-d)등의 경우를 제외한 자유 초점의 경우는 문장의 순수 의미 (semantics proper), 다시 말해 진리 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cf. Hajicova, Partee, & Sgall 1998, Rooth 1985, 1996, Kadmon 2001)

## (8) a. focalizers:

John only introduced Bill to SUE.  
John only introduced BILL to Sue.

## b. adverbs of quantification:

In Saint Petersburg, OFFICERS always escorted ballerinas.  
In Saint Petersburg, officers always escorted BALLERINAS.

## c. modals:

OFFICERS must escort ballerinas.  
Officers must escort BALLERINAS.

## d. reasons:

The reason Clyde MARRIED Bertha was to qualify for the inheritance.

The reason Clyde married BERTHA was to qualify for the inheritance.<sup>2</sup>

예를 들어, (8a)의 두 문장에서 *only*를 빼 나머지 부분의 의미의 차이는 초점의 차이로 인해 생긴 두 개의 영역 집합인 (3)과 (4)의 차이에만 존재한다. 그리고 이 집합은 문장 내부의 의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두 문장의 진리치의 차이는 *only* 고유의 의미와 *only*를 빼 나머지 부분의 초점에 의해 발생한 초점 의미치인 대체 집합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얻어지게 된다.

여기에서 (2-5)와 같은 대체 집합들이 문장 내적 진리 조건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다른 운용소나 문장 밖의 요소들과의 결합을 통해서만 그것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 과연 개념적으로 타당한 입장인가를 위의 예들 중 (8d)의 두 문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8d)에서 자유초점이 내포문의 진리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이들 전체 문장의 진리치의 차이가 발생하도록 한다는 입장이 가능한 일일까를 보는 일이다.

(9-10)으로 반복된 (8d)의 두 문장은 여러 문헌에서 논의된 대로 다음 (11)과 같은 Dretske 시나리오의 문맥에서 진리 조건적 차이를 발생시킨다. (Dretske 1972, Hajicova 1984, Bromberger 1987, Engdahl 1986, Rooth 1985, 1996, Hajicova, Partee, & Sgall 1998, Roberts 2001).

(9) The reason Clyde MARRIED Bertha (p) was to qualify for the inheritance.

(10) The reason Clyde married BERTHA (p') was to qualify for the inheritance.

(11) Clyde is a dedicated bachelor who does not want to live permanently with a woman. Yet Clyde finds out that he will inherit a lot of money if he is married by the age of 30. Clyde had two close female friends. One is Anne and the other is Bertha. Anne loves Clyde very much, but that is somewhat burden to him. So, Clyde solves this dilemma by marrying Bertha, a dedicated archeologist who is out of the country almost all the time.

(11)과 같은 경우, 위의 (9)는 참인 반면, (10)은 거짓이다. 대체 의미론에 의하면 p와 p'의 진리 조건은 같고 그 문장들이 취하는 영역 집합 ALT(p)와 ALT(p')으로 표시된 대체 집합만이 다음과 같이 다르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sup>2</sup>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최상급의 문장도 초점의 위치에 따라 진리치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도 논의되었다. (Partee 1991, Hajicova, Partee, & Sgall 1998)

(i) The largest demonstrations took place in [PRAGUE]F in 1989.

(ii) The largest demonstrations took place in Prague [in 1989]F.

현실의 세계에 비추어 판단해 볼 때, (i)은 거짓이지만, (ii)는 참이다.

(12) a.  $ALT(p) = \{R(\text{Clyde, Bertha}): R \in ALT(R)\}$   
 $= \{\text{Clyde married Bertha, Clyde loved Berth, Clyde befriended Bertha, Clyde hated Berth.....}\}$

b.  $ALT(R) = \{\text{marry, love, befriend, hate.....}\}$

(13) a.  $ALT(p') = \{\text{married (Clyde, } d): d \in D\}$   
 $= \{\text{Clyde married Bertha, Clyde married Laura, Clyde married Clara.....}\}$

b.  $D = ALT(d) = \{\text{Bertha, Laura, Clara,.....}\}$

즉, (9)와 (10)의 의미의 차이는 내포문 p와 p'의 담화 영역이 각각 (12)의 ALT(p)와 (13)의 ALT(p')과 같이 다르다는 사실에만 존재하고 p와 p'은 문장 내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12-13)의 내용을 다시 일반 언어로 표현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12') 영역 ALT(p)의 집합 중에서 p가 참인 이유는 유산 상속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이다.

(13') 영역 ALT(p')중에서 p'(=p)가 참인 이유는 유산 상속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이다.<sup>3</sup>

여기에서 (12')은 참이고, (13')은 거짓이다. 따라서, (9)와 (10)의 의미의 차이는 오직 영역 ALT(p)와 ALT(p')의 집합의 차이에 있다. 이 영역 집합의 차이는 어디서 연유하는가? 바로 초점이 가져다주는 다른 대체 집합이다. 그런데 대체 의미론에서는 초점 문장의 순수 의미, 즉 진리 조건은 초점의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같다고 하면서도, 초점이 도입시키는 영역은 진리 조건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뜻인데 문장의 의미의 일부로 포함되는 의미가 어떤 방식으로든 문장의 의미의 일부로 남아 있어야지 어떻게 의미의 일부이면서도 문장 내적 의미에 전혀 기여를 안 하는 존재가 있을까? 초점의 영역도 이 대체 의미론에 의하면 초점에 의해 도입되는 약정 의미의 일부임에 분명하다. 경우에 따라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대화 함축의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p와 p'에 나타나는 자유 초점의 의미의 차이는 그 원천이 영역집합에서 기인하든 아니든 음성적 강제라는 약정적 표시 (conventional sign)에 의해 진리 조건에 기여하는 언어 현상이라는 사실을 부인 할 수 없다. 그러나 대체 의미론에서는 문장내적으로는 진리 조건으로서의 역할을 안 하다가 다른 요소와 만나면 비로소 역할을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즉, 대체의미론에서 인정하는 초점의 진리 조건적 의미는 초점과의 연계 (association with focus)라는 현상이 일어나서 진리 조건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뿐 그 초점 의미 자체가 진리조건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초점의 위치에만 차이가 있는 두 문장이 겉으로 진리치의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only의 경우가 그렇듯이 초점의 위치에 따라 only가 연계하는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

<sup>3</sup> 초점을 고려하지 않은 명제의 의미는  $p=p'$ 이다.

에 그때는 진리치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only라는 부사가 연계하는 언어 표현이 달라지므로 그 문장의 의미 구조가 달라지거나 혹은 일반 의미치 자체 혹은 그 문장의 명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단지 담화 영역이라는 모습으로 초점의 의미가 존재하지만 그 담화 영역은 문장의 의미 구조 자체에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도 영향을 미치지도 못한다. 따라서 순수 의미, 즉 진리 조건의 형성에는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대체 의미론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으로서는 문장의 의미를 초점 의미치와 일반 의미치라는 이차원으로 분류를 해서 문장의 진리 조건, 혹은 의미 구조는 일반 의미치라고 하는 (초점에 대한 정보는 빠진) 명제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것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초점이 문장 내부 의미조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대체 의미론의 정의 자체가 초점의 의미는 진리 조건에 기여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이다. 즉 초점 의미치는 진리 조건에서 빠지고 진리 조건은 초점을 뺀 문장의 명제만 가지고 논하기로 처음 이론의 틀이 정의가 된 것이다. 그러니 초점의미치인 영역이라는 존재가 초점문의 진리 조건에 기여 할 수 있는 통로는 원천적으로 봉쇄한 상태로 이론을 세운 것이다. 분명 문장의 관용 의미의 일부인데 문장의 의미와는 전혀 별개로 존재하다가 어떤 운용소나 문장 부사 혹은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 같은 것이 나타나면 훌연히 나타나서 문장의 진리 조건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존재이다. 그럼 그런 운용소가 없을 때나 문장 너머 이전 문맥과의 일치 관계를 검사할 때가 아니면 그 영역 집합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가? 문장의 의미의 일부로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다. 즉, 의미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의미의 일부가 아닌 무엇으로 규정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대체 집합이라는 것의 본질이 어떤 언어적 존재이길래 이렇게 특이한 양태를 보이는 것인가? 이런 이중적 양태를 보이는 언어 범주가 또 있을까 찾아보자.

먼저 대체 집합을 일단 문장의 양화 영역이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니까 다른 양화 영역과 같은 범주로 묶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양화 영역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문장의 의미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 존재인가? 예를 들어 다음의 양화 표현을 보자.

(14) Every boy played soccer.

(14)에서 every boy의 전칭 양화된 명사구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의 경우 'boy'라는 영역이 어떤 영역을 취하는가에 따라 진리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1학년 1반의 'boy'의 집합을 영역으로 취할 때와 2반의 'boy'의 집합을 영역으로 취할 때 'every boy'의 값은 달라질 테고 이에 따라 문장의 진리치도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 때의 영역은 모형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거나, 대화의 맥락에 따라 문장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달라진다.<sup>4</sup> 즉, (14)의 문장의 진리 조건은 항상 같고 단지 문장 외적으로 주어지는 영역 집합에 의해 진리치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14)의 진리치는 영역에 따라 변화하지만, 진리 조건은 영역에 따라 변화한다고 말할 수 없다. 문장의 고정된 의미, 즉 진리 조건은 같지만 문장과는 별도로 모형에서 주어지는 영역 집합에 따라서 진리치가 달라질 뿐이다. 따라서 영역 집합의 내용은 (14) 문장, 혹은 'every boy'라는

<sup>4</sup> 양화 표현과 영역 집합 간의 맥락적 가변성에 관해서는 Roberts (1995)에 잘 다루어져 있다.

양화 표현의 진리 조건의 일부가 아니라 주어진 모형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초점으로 인해 생긴 대체 집합은 일반적인 양화 영역과는 다르게 행동한다. 즉 양화 영역이라고 해서 문장 내부적으로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문맥과의 일치성을 검사할 때만 출현하는 존재는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대체 의미론에서 나타나는 대체 집합은 그런 일반적인 양화 영역과도 다르다.

그렇다면 이 대체 집합이 초점 문장의 전제 의미라서 이중적 양태를 보이는가를 한 번 생각해 보자. 그러나 전제 정보라고 하더라도 문장의 진리 조건에는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I stopped smoking에서 I smoked before라는 전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진리 조건의 일부여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것이다.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 전제 취소의 경우가 발생하지만 그런 경우는 상위 언어 부정이라든가 예외적인 언어 현상으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일반적인 전제 정보도 문장의 진리 조건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데 왜 유독 초점으로 인한 전제 정보는 그 문장의 진리 조건의 일부로 기능을 못하는 특별한 언어현상의 종(species)으로 취급을 해야 하는 것인가?

또한 이 대체집합을 전제로 설정하는 것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대체 의미론에서는 초점문의 ‘전제’가 초점 의미치고 ‘단언’이 초점을 빼고 남은 명제이다. 그러나 (12')과 (13')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 두 문장의 차이는 ALT(p)와 ALT(p')이라는 부분 말고는 아무 데도 없다. 두 경우 다 p라는 문장이 발생을 하는 건 주어진 사실인데 ALT(p)중에서 발생을 하는가 (즉, ALT(p)의 원소인가) 아니면 ALT(p')중에서 발생하는가를 결정해서 전달해 주는 것이 초점의 기능이다. 그러니까 p가 참이라는 사실보다는 p는 어떤 영역 중에서 나온 원소인가를 밝혀 주는 것이 이 초점 문장의 핵심 내용이다. Prague 언어학의 전통을 빌어 표현하자면 문장에서 초점 정보가 가장 역동성이 많은 정보, 즉 동적(dynamic) 정보에 속한다는 입장과도 일치한다. 또한 일반적인 전제에 관한 연구에서도 “강세가 없는 부분” - 즉, 비 초점 부분에 해당 - 은 전제 정보를 유발하고 “강세가 주어진 부분” - 즉, 초점 부분 - 은 단언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체적 입장을 고려해 보아도 쉽게 예측되는 결론이다. 따라서 대체 의미론에서 초점으로 인한 정보인 대체 집합은 전제 정보이고, 초점을 뺀 명제 의미가 단언 정보라고 하는 입장은 분명 일반적인 입장과 어긋나는 면이 있다.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초점이 공헌하는 바가 초점을 무시한 상태의 정보보다 그 문장의 가장 동적인 정보가치를 지니고 있는 내용으로서, 예를 들어 담화 표상 이론과 같은 동적 의미론에서 갱신(update)하는 마지막 정보가 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따라서 초점으로 인한 정보가 단언의 의미가 되고 나머지 의미가 전제의 의미가 되어야 할 것 같다. 물론 둘 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 I stopped smoking에서 내가 예전에 담배를 피웠었다는 전제적 사실도 중요하고 그것을 끊었다는 단언적 사실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마지막에 갱신(update) 되어야할 최신 정보는 끊었다는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초점문장도 초점의 의미와 초점을 뺀 문장의 의미 둘 다 중요하지만 초점으로 인한 내용이 더 동적이고 더 정보 가치가 높다고 보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한 면이 있다. 그러니 초점문의 정보와 단언의 의미를 이러한 관점에서

고려해 본다면 명제 의미인  $p$ 가 전제정보이고 초점으로 인한 의미, 즉 여기서는 초점 의미치, 이는 곧 영역 집합인데, 이것이 단언의 의미가 되어야 할 정보로 보는 것이 다른 일반적인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더 합당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여기서 대체 의미론의 영역 집합이 단언 정보이고 명제 의미가 전제 정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지적을 하는 이유는 대체 의미론이 초점의 의미를 처리하는 방법의 이론 내적인 모순성을 지적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또한, 초점 의미의 정보적 중요도는 (12-13)의 경우의 진리치를 보아도 확실히 드러난다. (12')과 (13')에서 reason을 언급할 때 무엇에 대한 이유를 지칭하는 것인가?  $p$ 가 참인 이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영역집합이  $ALT(p)$  혹은  $ALT(p')$ 인 이유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 정보에 의거해서 참, 거짓의 결정이 가능해 진다. 만약 대체 의미론의 입장대로 이 때 초점을 뺀 명제의 참, 거짓이 단언의 정보라면  $p$ 가 참인 이유를 말해야 하는 것이지 왜 문장이  $ALT(p)$ 라는 영역 집합의 원소라는 것의 이유를 말 하는 게 적절한 해석이 되어야 하는가? the reason이 지칭하는 바가 초점을 뺀 명제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초점 의미치인 대체 집합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또 있다. (9)와 (10)을 다음과 같이 두 문장으로 나누어 보자. 의미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9') Clyde MARRIED Bertha. The reason was to qualify for the inheritance.

(10') Clyde married BERTHA. The reason was to qualify for the inheritance.

대체 의미론의 입장대로 독립 문장에서는 담화 영역은 아무 역할도 안하니까 그대로 무시하고 위의 문장들을 (12'-13')과 같이 번역을 해 보면 (9'') (10'')과 같이 될 것이다. 즉 대체 의미론의 입장대로라면 (12'-13')에는 reason이라는 요소와 상호작용을 해서 진리 조건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존재해야 했던 영역  $ALT(p)$ 와  $ALT(p')$ 은 여기서는 효과가 사라지면서 진리조건에 영향을 없애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라져야 한다.

(9'')  $p$ 가 참이다. 그 이유는 유산 상속을 받기 위해서이다.

(10'')  $p$ 가 참이다. 그 이유는 유산 상속을 받기 위해서이다.

결국, (9'')과 (10'')은 같은 의미가 되고 같은 진리치를 가져야 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렇다면 여기서 the reason에 해당하는 ‘the’가 조응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 예문이 제대로 의미 분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담화 영역이 앞 문장의 의미의 일부로 들어가야만 한다.

(9'')  $p$ 가 참이고  $ALT(p)$ 의 원소이다. 그 이유는 유산 상속을 받기 위해서이다.

(10'')  $p$ 가 참이고  $ALT(p')$ 의 원소이다. 그 이유는 유산 상속을 받기 위해서이다.

즉,  $p$ 가 참인 것은 둘 다 공통되기 때문에 오히려  $ALT(p)$  부분이 ‘그 이유’의 ‘그’가 지칭하는 의미적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초점에 의해 생겨난 이 영역이

라는 것은 분명히 초점 문장의 진리 조건의 일부로 내재하고 있어야 일관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된다.

이렇게 초점에 의해 생겨난 영역의 의미적 위상은 다음과 같은 일반 양화 표현의 영역의 기능과도 다르지 않다. Mrs. Sanders의 반에서 한 학생이 시험에 붙었는데 그 학생은 John이고 Mrs. Schmidt의 반에서는 한 학생이 붙었고 Fred라고 하자. 이 경우 Some boy in Mrs. Sanders' class passed. He was John.이라는 말은 진실이지만, Some boy in Mrs. Schmidt's class passed. He was John.은 거짓인 문장이다. 결국 some boy가 양화하는 영역이 Sanders 선생의 반인가 Schmidt 선생의 반인가에 따라 진리 조건이 달라지는데 이 때의 영역 집합의 기능은 (9-10)에서 주어진 영역인 대체 집합과 그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즉, 대체 의미론에서 설정하는 대체 집합은 어휘로 표현된 의미와 그 문장내부의 의미적, 진리 조건적 중요성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12)와 (13) 문장들의 초점의 차이는 문장 내부에서 제공되는 언어 표현으로서 간접적인 효과가 아니라 거기에서 진리 조건의 차이의 근원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체 의미론에서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초점은 문맥에 나타나는 적정성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든 아니든 잠재적으로만 존재하든, (9"-10")의 ALT(p) 혹은 ALT(p')에서 보았듯이 항상 문장의 순수 의미, 즉 진리조건의 일부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초점이 독립 문장에서 진리치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를 보자.

(15) 나는 집에서 돈이라고는 100원짜리 동전 5개를 달랑 가지고 나왔다. 민호가 나에게 와서 동전 세 개를 달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민호에게 동전 세 개를 주었다.

(16) 민호가 나에게 와서 동전을 달라고 할 때, 나는 동전 세 개를 가지고 있었다.  
(참)

(17) 민호가 나에게 와서 동전을 달라고 할 때, 나는 동전 [세 개를]<sub>F</sub> 가지고 있었다  
(거짓)

(16)에서 내가 가진 동전의 정확한 수는 다섯 개였음에도 문장이 참인 반면, (17)에서와 같이 '세 개'에 초점을 주어 발음한다면 일반적인 한국어 사용자라면 거짓으로 판별할 것이다. 그 이유는 초점을 받는 경우 동전의 정확한 수가 세 개라는 뜻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수에 초점이 왔을 때 '정확히'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또한 초점의 위치 혹은 유무에 따라 문장의 진리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따라서 어떤 초점 이론이 되었든, 초점의 기능은 문장의 진리치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포착해야만 한다. 그러나 대체 의미론은 두 문장이 발생할 수 있는 문맥에 의해서만 초점으로 인한 차이를 구분하고 문장 자체가 지니는 진리치의 차이는 간과한다.

구조화 의미 이론 (structured meaning theory)도 같은 문제점을 지닌다. 초점의 구조화 의미 이론은 von Stechow (1981), Cresswell & von Stechow (1982) 등에 의해 주창되었는데, 여기서는 초점을 받는 문장의 의미를 i) 초점 부분을  $\lambda$ -추상화 시켜서 얻은 자질, 즉, 배경(background)과 ii) 초점 구문의 의미, 즉, 전경(foreground)으로 이루어진 순서화된 나열로 되어 있다고 보고, 이를 구조화된 의미 (structured meaning)라고 부른다. 다음의 (18-19)가 (1a-b)의 구조화된 의미들이다.

(18)  $\langle [\lambda x[\text{introduce}(j,x,s)], \text{Bill}] \rangle$ : i.e.,  $\langle \text{the property of having been introduced by John to Sue, the individual Bill} \rangle$

(19)  $\langle [\lambda y[\text{introduce}(j,b,y)], \text{Sue}] \rangle$ : i.e.,  $\langle \text{the property of being somebody that John introduced Bill to, the individual Sue} \rangle$

이 구조화 의미 이론도 wh-의문문과 그 대답 간의 적정성을 설명할 수 있다. wh-의문문의 의미를 wh-구를  $\lambda$ -추상화시켜서 얻어지는 자질로 보는 연구들의 입장 (Hausser 1976, Tichy 1978, Scha 1983)을 받아들이면, (18)과 (19)의 배경의미와 (1a)와 (1b)의 초점문을 대담으로 갖는 wh-의문문의 의미가 각각 같아지기 때문에, wh-의문문과 초점 문장으로 된 대답이 적정하다는 설명을 제시한다.

이 두 주요 이론들의 공통된 입장은 자유 초점들은 진리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발생 문맥의 적정성을 확인시켜주는 일만을 한다고 본다. 대체 의미론의 경우는 위에서 논의되었고, 구조화 의미론의 경우도 각 초점 문장이 어떤 구조화 의미를 갖고 있는 무관하게,  $\lambda$ -변환을 통해 그 문장들의 명제적 의미, 즉 진리 조건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게 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초점으로 인한 의미는 분명 문장의 의미의 일부로 존재해야 하고 게다가 이미 논의했듯이 오히려 문장의 가장 역동적 정보로 존재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체 의미론이 상정하는 대체 집합이라는 초점 의미치나 구조화 의미론의 문장 구조의  $\lambda$ -표현이라는 존재로서는 그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다.

## 2.2 대체 의미론의 영역 집합

다음은 대체 의미론의 두 번째 특징인 (7b)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위에 논의한 대로 대체 의미론에서의 영역 집합은 초점에 의해 발생시키는 대체 집합, 예를 들어 (4)와 (5)에서와 같은 명제들의 집합인데, 이들은 초점 문장 자체의 의미의 일부로서 도입되는 영역 집합이고, 기존의 모형 의미론의 모형에서 주어지는 영역 집합과는 별개의 영역이다. 또한, 초점 받는 구에 대한 대체 집합만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큰 통사 범주의 대체 집합들을 도입해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1b)의 경우는 Sue에 대한 대체 집합뿐만 아니라, 문장의 대체 집합을 생성해서 고려해야 한다. 이는 위의 (12)와 (13)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다. 즉, 기존의 모형에서 설정하는 영역 집합은 (13b)의 개체들의 집합이라든가 (12b)의 관계들의 집합들로서 이들은 초점문의 의미와는 무관하게 모형의 일부로 개별 문장의 의미와는 독립적으로 설정되는 집합

들이다. 그러나 (12)와 (13)에서 보았듯이 대체 의미론은 기존의 모형의미론에서 주어진 영역 집합이외의 명제들의 집합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Rooth (1985)의 대체 의미론의 순환적 정의에 의하면 초점을 포함하는 모든 구(phrase)들은 그 구에 해당하는 유형의 대체집합들을 초점 문장의 의미의 일부로 생성시키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1a)의 초점 의미치로 BILL이라는 초점을 위한 초점 의미치인 {John, Bill, Sue, Mary}의 대체 집합과 문장의 초점 의미치인 {[John introduced John to Sue]<sup>0</sup>, [John introduced Bill to Sue]<sup>0</sup>, [John introduced Sue to Sue]<sup>0</sup>, [John introduced Mary to Sue]<sup>0</sup>}의 명제 집합 뿐만 아니라 {[introduced John to Sue]<sup>0</sup>, [introduced Bill to Sue]<sup>0</sup>, [introduced Sue to Sue]<sup>0</sup>, [introduced Mary to Sue]<sup>0</sup>}의 동사구의 대체 집합까지도 순환적으로 생성하게 된다.<sup>5</sup>

이러한 대체 집합으로 이루어진 영역들이 초점 문장의 의미의 일부로 도입되어 초점의 의미 연산 과정이 복잡하게 된다. 따라서 대체 의미론은 이러한 점에서 과다한 연산적 부담을 내재하는 이론이라는 단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구조화 의미론은 대체 의미론과 이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조화 의미론에서는 초점 문장의 의미 설정에 필요한 영역으로서 초점 구에 해당하는 요소의 유형에 해당하는 개체들 즉, (11)의 경우  $\lambda y[\text{married}(c,y)]$ 의 자질을 가질 수 있는 개체 유형들, 즉 Clyde가 결혼할 상대에 해당하는 후보자, 즉 Bertha와 같은 유형들로 이루어진 개체 집합의 영역만을 검색하게 된다. 대체 의미론의 경우는 문장 전체에 해당하는 대체 집합을 계산해서 문장 자체의 영역으로서 도입되는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구조화 의미론은 대체 의미론에 비해 대체 집합 생성의 연산 과정은 더 간단하다는 이점이 있고, 초점 구문에 해당하는 의미 유형에 대한 영역 집합만을 고려하면 된다는 점에 있어서 직관적으로도 더 타당하다는 이점이 있다. 즉, 영역 집합을 고려함에 있어서 모형에서 주어진 의미 영역 이상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이론은 공통적으로 위에서 논의한 진리 조건적 차이를 간과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관찰한 진리 조건적 영향을 설명하고, 새로운 대체 집합을 도입시키지 않고 모형에서 주어진 영역 집합만으로 초점 문장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초점 부분과 비초점 부분으로 분리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곧 초점 문장의 문장 내적 구조를 정확히 포착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초점 문장의 내적 구조를 고려하는 접근 방식은 위에서 살핀 구조화 의미론에서도 본 대로 선행 연구에서 종종 시도되고 있다. 즉, 구조화 이론도 이런 문장 내적 구조의 차이를 포착하려 한다. 그러나

<sup>5</sup> Rooth (1985)는 Chomsky (1976)가 제시한 초점구의 LF 이동 가설 분석에 대한 반대 근거로 초점구문의 섬 제약 조건등의 불이행 문제를 들어 초점구의 제자리 (in situ) 해석을 주장했다. Rooth (1985)의 초점 의미치 생성을 위한 순환 정의는 Rooth (1985)가 한편으로는 결국 초점 구문에서의 의미해석을 위한 합성성의 원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제자리 (in situ) 해석을 위한 방법으로서 제시했다. 그러나 제자리 해석의 쟁점에 관해서는 섬 제약 조건을 지키지 않는 다른 작용역 운용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Rooth (1996)에 가서는 오히려 후퇴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본문에서 순환 정의를 언급한 이유는 순환 정의에 의거할 경우 대체 집합이 얼마나 많이 생성이 되는지를 지적하기 위함이다. 순환 정의의 이론적 함축에 대한 논의는 본 논문의 주제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들이다.

이미 논의한대로 이 이론에서 설정하는 구조적 차이는 결과적으로 초점 문장이 발생하는 문맥의 적정성만을 체크해 주는 것에 한하고 위에서 관찰한 진리 조건의 차이는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즉, 람다 변환 이후에 문장의 의미인 구조화 의미를 거친 초점 문장과 일반적인 문장의 명제 의미는 똑 같게 된다. 따라서 초점으로 인한 연산 작용이 끝난 다음의 문장의 의미는 초점을 고려하지 않은 문장의 의미와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sup>6</sup> 따라서 이 이론도 관찰된 진리 조건적 차이에 대한 설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다.

위에서 관찰한 진리 조건의 차이와 대체 의미론의 복잡한 연산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고려해 Wee (1999, 2001)에서는 대안으로서의 초점 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그 내용을 아래에 간략히 소개한 후 이 이론에서 상정하는 초점 현상에 관련되는 담화 영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초점 현상이 모형에서 주어진 담화 영역에 작용하는 연산적 구체성을 집중적으로 밝혀려 한다.

### 3. 초점 분석

#### 3.1 정체 구현(identification)의 서술(predication) 기능

위에서 초점 문장의 구조를 이용해 문장에 미치는 진리 조건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초점 문장의 내적 구조를 정확히 밝히는 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이를 위해 Wee (1999)에서는 초점 문장의 초점 부분이 하는 일과 비초점 부분이 하는 일에 대한 구분을 시도했다. 이 부분은 본 논문의 주요 쟁점으로 기술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의 정당성이나 근거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고 단순히 개요를 소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초점 부분의 기능에 대한 분석을 위해 다음의 예문을 통해 초점 구문이 발생하는 담화 맥락을 한 번 고려해 보자.

- (20) a. 민호: 나는 두 개의 동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너희는 동전이 없다고 말했어. 그런데 그 커피는 어떻게 뽑았니? 누군가가 동전이 있었던 거야.  
 b. 수미: (사실은) [내가]<sub>F</sub> 동전 두 개 있었어.
- (21) a. 민호: 나는 동전이 필요해. 너 동전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말해봐.  
 b. 수미: 나는 동전 [두 개]<sub>F</sub> 있어.

<sup>6</sup> Herberger (1998)의 davidsonian 접근 방식도 문장을 초점과 비초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초점에 의해 문장 내적 구조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문장의 진리 조건적 의미에까지 미치게 하는 접근 방식이 아니다. 미국의 전통적 형식 의미론의 연구 쪽에서는 이러한 입장은 거의 발전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Prague 학파의 한 사람으로서 기능주의적 접근이 아닌 형식 의미론적 방법론을 추구하는 Peregrin (1996), Chomsky (1971, 1976)의 직관을 받아들여 최소주의 분석을 시도하는 Zubizarreta (1998) 등의 통사적 접근 방식의 초점 이론 등이 가정하고 있는 초점에 의한 문장 내적 정보 구조의 변화는 위에서 관찰한 진리 조건적 차이를 가정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분석이다.

(20b)의 초점 문장이 발생하도록 허락하는 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은 (20a)의 밑줄 친 문장이 있어서 가능하다. 즉, 누군가가 동전이 두 개 이상 있었다는 내용이 이전 담화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20b)의 초점문이 적절하게 나타날 수 있었다. (21)의 경우는 (21a)의 동전을 몇 개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21b)의 초점 문장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초점구문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대로 이전 담화에 ‘누군가’와 같은 비한정 표현일 수도 있고 ‘몇 개’와 같은 wh-의문사일 수도 있는 초점구에 대한 선행사가 있다. 즉, (20b)의 초점인 ‘나’는 (20a)의 ‘누군가’에 의해 초점 발생의 선결 조건을 부여 받는다. 그 문장의 의미는 ‘동전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지칭하는 숨겨진 대명사와 같은 조음사 (anaphor)가 ‘나’라는 지시체와 동일하다는 것을 단언하는 문장이다. 즉, 초점부분 ‘내가’를 제외한 비초점 부분과 ‘내가’라는 새 지시체에 의해서 가려진 숨어 있던 구 지시체, 즉 ‘누군가’를 조음하는 지시체는 모두 전제된 내용이고, 이 숨겨진 지시체가 바로 ‘나’와 같다고 서술하는 부분이 초점이 하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다.

위의 문맥에서는 ‘누군가’라든가 ‘몇 개’와 같이 초점의 숨겨진 조음사의 선행사가 표면적으로 들어 나기도 하지만, 문맥 상에서 함의된 담화 표지를 조음하는 초점도 있다. 예를 들어 (20a)에서 밑줄 그은 부분이 없다고 해도 (20b)의 초점 문장은 가능해 지는데 그 이유는 위의 문맥에 의해 밑줄친 부분인 ‘누군가가 동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을 함축 또는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초점은 앞 말이나 앞 글과의 연결과 일체성을 표현하는 기재이기 때문에 앞의 말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표시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연결을 바로 초점이 불러들이는 구 지시체인 조음사와 함께 초점들의 내용을 문맥에 관련짓는 일을 통해 수행하게 된다. 그래서 초점을 포함하는 문장의 비초점 부분 혹은 초점틀 (focus frame)이라고 불리는 부분과 그 초점들의 자질을 갖는 조음사로서의 지시체가 함께 문장의 “전제적 의미”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조음적 지시체와 초점이 도입시키는 새 지시체 간에 동일함을 서술하는 부분은 문장의 “단언적 의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초점이 문장의 진리를 단언하는 부분을 전체 문장에서 골라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22-23)과 같이 초점 문장을 부정문에 넣어 보자. 부정되는 의미가 두 경우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내가]<sub>F</sub> 동전 두 개 있었다는 거 사실이 아니다.

(23) 나한테 동전 [두 개]<sub>F</sub> 있었다는 거 사실이 아니다.

(22)가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하는 바는 동전 두 개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의미가 되고 (23)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동전의 수가 두 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두 초점문의 단언된 의미가 다르다는 뜻이 된다. 부정문에 내포시켰을 때, 부정되는 정보만이 그 문장의 단언적 의미이고 나머지는 전제라는 고전적 시험 방법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위에서 논의된 대로 초점은 전제된 조음사로서의 구 지시체와 초점구가 표면적으로 불러들이는 새 지시체와의 동일 서술을 통한 정체 구현이라는 사실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 (22)와 (23)의 내포 명제의 의미 구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볼 수 있겠다.

(22') The one(s) who had two coins is me.

(23') The number of coins that I had is 2.

즉, 이 의미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모문에 내포되면, 정체 구현의 서술 (identificational predication), 즉, 'is me'와 'is two' 부분을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초점구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는 직관은 여러 문헌에서 발견된다.<sup>7</sup>

따라서 초점의 기능은 위의 문장 (22'-23')과 의미적으로 같은 내용이 초점 문장에 의해 전달될 수 있도록 문장의 의미 구조를 통사적으로는 들어나지 않게 변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초점문장이 (22'-23')과 같은 의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초점 문장의 단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의미적 술부 (predicate)에 해당되고 이는 그 의미적 주부 (subject)의 정체를 구현해 주는 내용을 뜻한다. 따라서 초점의 기능은 문맥에서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어떤 담화 지시체 (discourse referent)의 정체를 구현해 (identification) 준다는 것이다.<sup>8</sup> 이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의 예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24) JOHN ate the pie.

초점화된 구문 'John'은 자신에 해당하는 유형(type)과 같은 담화 표지를 두 개를 불러 들여, 하나는 전제로서 그 문장의 초점틀(focus frame)의 자질을 만족 시키는 조음 사로서의 담화 표지, 예를 들어, *a*를 도입시키고, 또 하나는 초점 받은 구 (phrase) 자체, 즉 John을 지시하는 *j*를 도입시킨다. 그리고 나서, *a*의 정체를 *j*와 서로 같은 존재로 확인하는 내용을 단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24)와 같은 초점 구문이 수행하는 기능이다. 이는 다시 표현하면, (24)의 초점 문장은 (25)와 같은 내용의 전제와 단언의 정보를 지니고 있다는 결과가 된다.

(25) a. Presupposition: Somebody<sub>a</sub> ate the pie.<sup>9</sup>

b. Assertion: The *a* (who ate the pie) is John<sub>i</sub>.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위 (20-21)을 통해 논의한 대로 파이를 먹은 존재 *a*의 정체가 John이라는 내용의 단언을 함에 있어서 그 파이를 먹은 *a*는 이미 문맥에서 도입되었거나 함의된 존재를 선행사로 지시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전제 부분에 도입된 somebody와 단언 부분에서 그 정체를 밝히는 대상이 다른 지시체가 된다면, 아무런

<sup>7</sup> 초점의 기능은 문장의 의미적 주어 (semantic subject)에 대한 서술(predication)의 기능이라는 입장은 Paul (1988) 이래로 많은 언어학자들의 직관에서 발견되어 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Wee (2003)를 참조바람.

<sup>8</sup> 이미 초점을 정체 구현 (identification)으로 정의하는 학자들도 간혹 존재하고 있지만 (Horvath 1986, E Kiss 1986, 1991 등), 무엇이 무엇의 정체를 구현시키는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경우는 없다.

<sup>9</sup> 이 부분에서 존재 전제에 대한 Rooth (1992, 1996)를 비롯한 여러 반론이 상기되었지만 필자는 Rooth가 제시한 cleft 구문과 비교한 존재전제에 대한 반론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cleft 구문에서 발생하는 전제 존재나 같은 정도의 존재 전제가 초점 구문에서는 발생한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는 Herberger(1998)도 같은 입장이다.

의미가 없다. Geurts (1998)는 비슷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지시체 간의 동일성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하는 의미가 얻어지지 않는다.<sup>10</sup>

위의 (21)의 현상에 대해 한 심사자는 다음과 같이 대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것이 현 이론에 대한 반례가 되지는 않는다.

- (21') a. 민호: 나는 동전이 필요해. 너 동전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말해봐.  
 b. 수미: 나는 동전 [두 개]F 있어  
 c. 동수: 뭐, 동전 세 개 있으면서.  
 d. 수미: 하나는 집에 가는 차비야. 그러니 민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두 개 밖에 없어.

이런 대화는 언제라도 가능하다. 이 때 (c)의 동수의 발화는 당연히 '세 개'에 초점이 와야 적절한 운율이다. 그리고 이는 다음과 같이 의미 분석이 된다.

(21'c) The number of the coins that you had is 3.

동수의 발화 문장은 앞의 문장들과 아무런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21'c)의 수미의 발언을 부인하고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이다. 문제는 (d)에서 수미의 발화인데 결국 수미는 (21'b)를 주장했으면서 나중에 (21'c)도 인정을 하는 결과가 된 것이다. 그러나 (21'b)에서 (21'd)로의 이동도 제시한 초점 분석 방법과 화용적 분석의 협력으로 포착이 될 수가 있다. 사실상 수미가 가지고 있던 동전은 세 개였지만 두 개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21'd)의 대화에 함의가 되어 있다. (21'b)의 의미는 (21'd)의 정보를 받아 사후에 다음과 같은 의미 조절이 이루어 지게 된다.

(21'b) The number of the coins that I have (and can give to Minho), is two.

위의 밑줄 친 부분은 처음의 수미의 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수미의 생각에는 있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현재의 이론에 화용적 변수를 설정하면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결국 이 화용적 제한은 한정표현의 특정성의 의미를 정의하는 과정에서의 화용적 의미의 개입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특정성 (uniqueness)은 뒤에 논의하겠지만 Russell(1905) 이후 일반적으로 한정 표현의 의미로 상정하는 부분이다. 이 특정성을 정의하는 담화 영역은 늘 화용적, 담화 맥락적으로 조절이 된다는 사실도

<sup>10</sup> 위의 분석과 거의 비슷한 의미적 해석이 Chomsky (1971, 1976)에서부터 제안되어 왔고, 근래 Zubizaretta (1998)가 받아 들여 자신의 통사 분석에 이용한 (iii)에 주어진 (iB), (iiB)와 같은 초점 구문의 LF 표현과도 거의 의미적으로 차이가 없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 분석을 형식 의미론에서 반영한 이론은 여태 나타나지 않았다.

- (i) a. A: Who ate the pie? B. [JOHN]<sub>F</sub> ate the pie.  
 (ii) b. A: What did John eat? B: John ate [the PIE]<sub>F</sub>.  
 (iii) a. the x, such that x ate the pie, is John.  
 b. the x, such that John ate x, is the pie.

잘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the boy라고 해서 온 우주에 boy라는 자질을 지닌 개체가 하나만 있을 때 쓰는 게 아니라 관련된 영역 (relevant domain)에서의 특정한 존재를 일컫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21'b)의 경우도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화자의 마음속에 들어 있는 의미나 아니면 담화 맥락에 관련된 의미를 나중에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화용적 변수 하나를 더 설정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화용적이고 담화 맥락적인 담화 영역의 조절은 어떤 이론이라 하더라도 이론의 일부로 포함되는 내용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된 이론에서도 쉽게 보충될 수 있는 부분이다.<sup>11</sup> 대체 의미론에서도 Rooth (1985)에 처음 제안되었던 초점 의미치인 대체 집합이 Rooth (1992, 1996)에서는 문맥에 관련된 집합 (relevant set)으로 제한을 받아 C라는 화용적으로 제한된 초점 의미치의 부분 집합으로 대체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 3.2 진리치의 차이

이제 위의 의미 구조가 어떻게 우리가 관찰한 진리치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기로 하자. (9-10)의 명제 p와 p'을 (26-27)에서 비교 분석해 보자.

(26) Clyde married BERTHA

(27) Clyde MARRIED Bertha.

이 초점 문장들을 위에서 제안한 전제/단언의 분류를 통해 재구성한 결과 (26'-27')의 의미 구조를 갖게 된다.

(26') The *i*, such that *married*(Clyde, *i*), is Bertha.

(27') The *R*, such that *R*(Clyde, *B*), is marrying.

이제 여기에서 지시체 *i*가 한정사 (definite determiner)에 의해 묶여 있는 것에 주목해 보자. 초점문의 전제 정보는 초점틀을 만족시키는 조용적 한정적 지시체 (anaphoric definite referent)의 존재를 가리키고 단언된 정보는 정체 구현 (identification)의 서술 (predication)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게 된다. 이 해석을 자연언어로 풀이해 보자면 'Clyde가 결혼한 사람 *i*는 Bertha이다'와 'Clyde가 Bertha와 맺은 관계 *R*은 결혼이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된다. 따라서 (26')과 (27')은 서로 다른 의미 구조를 갖고 있고, 그에 따라 그 진리 조건도 함께 달라진다. 즉, 이 문장들이 (9), (10)에 포함되면 바로 다음과 같은 해석으로 풀이된다.

(9') [Clyde가 결혼한 상대]<sub>a</sub>가 [Bertha]<sub>b</sub>인 이유는 유산 상속의 조건 만족을 위해서이다.

<sup>11</sup> 이런 화용적 제한에 대해서는 4.2.2에서도 잠시 언급 했듯이 당연히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화용적 논의로부터 제공되어야 할 내용이므로 본 논문의 주제를 벗어나는 일이라 다루지 않았다.

(10'') [Clyde와 Bertha와 맺은 관계] $_R$ 가 [결혼] $_M$ 인 이유는 유산 상속의 조건 만족을 위해서이다.

(9'')에서  $a$ 는 조응사로서 앞의 문맥 (11)에서 Clyde가 결혼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결혼 상대의 존재는 함의 되고 그 존재가  $a$ 의 선행사 역할을 하고 그 조응사  $a$ 가 Bertha  $b$ 와 동일함을 서술한다는 정보를 가진다. (10'')의 경우도 이미 Clyde가 Bertha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음이 함의되기 때문에 관계를 나타내는 조응사  $R$ 은 허가를 받게 되고 그  $R$ 이 marry와 동일하다는 서술을 하는 의미 구조가 된다. 따라서 (11)의 시나리오에 비추어 (9'')은 거짓이지만 (10'')은 참이 되고, 이 차이는 초점 문장으로 인한 의미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또 한 가지 초점 논의에서 자주 동반하는 완전성 (exhaustivity)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유 초점은 초점구에 의해 나열된 항목들이 그 자질을 만족시키는 항목을 모두 모아 놓은 것이라는 완전성(exhaustivity), 혹은 배타성의 해석을 갖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본다.<sup>12</sup>

다음 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초점 문장과 관련된 진리 조건의 영향, 숫자에 나타나는 '정확히'의 의미, 완전성의 의미들이 위에서 제시한 의미적 분석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출되는가를 보고자 한다. 이제부터 초점 현상과 관련된 담화 영역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될 것이다.

#### 4. 담화 영역과 초점

##### 4.1 한정 표현의 의미

한정 표현은 Russell (1905) 이후 그 의미치로서 특정성 (uniqueness)의 전제를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정적 표현을 만족시키는 개체, 즉, (1'a)의 경우 John에 의해 Sue에게 소개된 존재는 특정한 한 존재 (혹은 여러 명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1a)는 3절에서 제시한 초점문의 의미 구조에 따르면 다음의 의미 구조를 갖게 된다.

(28) the  $x$ , such that John introduced  $x$  to Sue is Bill

전제 의미에 해당하는 밑줄 그은 부분은 한정 표현으로서 특정성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리식을 만족시켜야 한다.

(29)  $\lambda x[x \in \llbracket \text{John introduced } x \text{ to Sue} \rrbracket \wedge \forall x' \in \llbracket \text{John introduced } x \text{ to Sue} \rrbracket \llbracket x' \leq x \rrbracket]$

여기에서 Link (1983)가 제안한 복수의 의미를 받아들여 변항  $x$ 는 개체의 합으로서 복수가 될 수도 있고 단수가 될 수도 있는 변항으로 보자. (29)의 앞의 식,  $x \in \llbracket$

<sup>12</sup> 초점과 결부된 완전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자세한 논의는 Wee (2002)를 참조 바람.

John introduced x to Sue ]] 이 의미하는 바는 변항 x가 John이 Sue에게 소개해 준 자질을 만족시키는 개체 중의 하나라는 의미가 된다. 뒤의 식,  $\forall x' \in [ [ \text{John introduced } x \text{ to Sue } ] ] [ [ x' \leq x ] ]$  는 같은 자질을 만족시키는 어떤 다른 변항 x'도 x와 같거나 x의 부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29) 전체는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x를 의미한다. 이 조건들은 다시 말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존재는 x 뿐이라는 의미. 혹은 그러한 자질을 만족시키는 최대항 x를 뜻한다. 이러한 특정성의 조건을 (29)와 같은 논리식으로 나타내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Rullman (1995)이 사용한 max 연산자로 번역해서 쓰기로 하면, (29)는 (30)으로 표시할 수 있다.

$$(30) \max(\lambda x [\text{introduce } (j, x, s)])$$

이 max 연산자는 주어진 자질을 지니는 최대(maximal)항을 내어주는 역할을 하고 이것이 바로 Rullman이 제시한 특정성을 지니는 한정 표현의 의미이다. 표현의 간결성을 위해서 앞으로 특정성을 내포하는 한정사의 의미를 이 max 연산자로 표시하기로 한다. 이제, (28)의 밑줄 그은 부분인 초점문의 전제 부분의 의미는 얻어졌다. 이제 남은 부분은 나머지 부분인 단언적 의미에 대해 살펴 보는 일이다. 여기까지 요약 소개된 이론적 틀은 기본적으로 Wee (1999, 2001)에서 발전시킨 분석 방법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전의 이론적 틀에서도 가정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초점 분석에서 필요한 담화 영역에 대해서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앞으로의 논의의 기본 이론적 틀은 Wee (1999, 2001)의 분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담화 영역의 역할과 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중점 내용이 될 것이다.

## 4.2 영역 구조 (domain structure)

4.2.1 격자 구조. 초점문의 단언의 의미는 정체구현의 서술이라고 했고, 전제된 지시체는 문맥에 의해 함의되어 나올 수 있음을 밝혔다. 그렇다면, 과연 전제된 지시체의 정체를 구현시켜주는 새 담화지시체, 즉 초점 구문의 새 지시체는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예를 들어, 위의 문장에서 초점을 받은 John이라는 지시체는 어디에서 오는가의 질문이다. 이제부터, 모형의 담화 영역 (domain)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모형에서 주어진 담화 영역인 개체들의 집합체로부터 가져오게 되는데, 그 영역의 구조가 어떠한가를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자. 이 절에서는 담화 영역의 구조가 Link (1983)의 격자 구조를 이루고, 순서화된 자연수의 집합, 그리고 담화 영역에 초점 받는 개체 이외의 적어도 한 다른 개체가 있어야 한다는 화용적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Link (1983)의 격자 이론 (lattice theory)에 의하면, 다음 (31)과 같은 개체 집합을 가정했을 때, 그 영역은 (32)와 같은 격자 구조를 이루고 있게 된다.

$$M = \langle D, F \rangle$$

$$(31) \{ \text{John, Bill, Mary, Sue} \}$$

$$(32) D = \{ J, B, M, \text{Sue. } J+B, B+M, M+S, J+S, J+M, B+S, J+B+M, J+B+S, J+M+S, B+M+S, J+B+M+S \}$$

이제 (1a)의 의미는 (33)과 같이 얻어지고 max 연산자를 사용해 표시하면 (33')과 같다.

$$(33) \text{ the } x, \text{ such that introduce } (j, x, s) = B$$

$$(33') \max(\lambda x [\text{introduce } (j, x, s)]) = B$$

자연언어로 표현하면, John이 Sue에게 소개시켜주었다는 자질을 지니는 한정 지시체  $x$ 는 Bill과 같다. 물론 여기 등식으로 표현된 왼쪽 항의 내용은 전제 정보이고, 등호와 우측항의 정체구현의 서술(identificational predication)의 의미는 단언의 의미이고, 이 두 종류의 정보는 구별되어 처리하는 것이 현대 동적 의미론의 입장이지만 여기서는 표현의 간결성을 위해서 (33)의 정적 공식을 그대로 쓰기로 한다. 여기에서 초점 구문은 한정 표현으로서의 전제정보에서 유래된 특정성의 의미에서부터 초점 구문의 완전성의 의미 혹은 배타성의 의미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4)와 같은 구문은 (34')과 같은 해석을 얻게 된다.

$$(34) \text{ John introduced } [\text{BILL AND MARY}]_F \text{ to Sue.}$$

$$(34') \max(\lambda x [\text{introduce } (j, x, s)]) = B+M$$

(34)가 진리가 된다는 것은 전제 정보는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등위성의 서술에 의해 전제 정보를 지니는 최대치가 Bill+Mary일 때이다. 이 경우 등호의 우측항에 B+M 대신에 B+M의 일부분이 되는 Bill 이나 Mary 혼자만이 되거나 Bill과 Mary를 포함하는 더 큰 합집합의 원소들 예를 들어, J+B+M, J+B+M+S가 오게 되면 진리치를 거짓이 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위에서 완전성의 의미를 포착해 줄 수 있다.

이제 (20b)와 (21b)에서 나타난 '정확히'의 의미를 보자. (8b)와 (9b)에서 나타난 초점 위치의 차이는 (20'b)와 (21'b)의 의미 구조를 얻게 된다.

$$(20b) [\text{내가}]_F \text{ 동전 두 개 있었어.}$$

$$(21b) \text{ 나는 동전 } [\text{두 개}]_F \text{ 있어.}$$

$$(20'b) \max(\lambda x (\text{had } (x, \text{two coins}))) = 'I'$$

$$(21'b) \max(\lambda x (\text{had } (I, x \text{ coins}))) = 2$$

(20')에서 두 개의 동전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사람(들)이 조용사로서 전제 되어있고 이 특정성의 의미가 최대치 연산자에 의해 산출되고 그 조용사는 '나'와 동일한 인물이라는 단언으로서의 서술을 하고 있다. (21'b)는 내가 가지고 있는 특정 동전의 개수가 조용사로서 전제 되어 있고 이 조용사는 '2'라는 숫자와 동일하다는 등식의 서술을 하고 있다. 이 때 두 개 이상의 동전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20'b)는 진리이다. (20'b)가 단언하는 것은 2개 (혹은 그 이상)의 동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단언하고 있고 내가 2개의 동전을 가지고 있기만 하다면, 그 이상의 동전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20'b)의 조건에 어긋나는 것은 없다. 그러나 (21'b)에서는 단언하는 의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동전의 숫자는 이미 특정하게 정해져 있고, 그 특정 수가 2와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면, 만일 2보다 적은 수나 큰 수와는 같을 수가 없고 등식이 성립되지 않아 거짓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초점이 숫자에 있게 되면 'exactly'의 의미가 얻어지게 되는 것이다.<sup>13</sup> 이 때, 숫자의 집합을 담화 영역으로 취하게 되는데, 이때의 숫자 영역에서의 최대항 산출은 다음과 같은 Rullman의 정도 집합에서의 최대항 연산자 정의를 그대로 적용시켜 얻어 낼 수 있다.

(35) Definition of the Maximality Operator max for degrees:

Let DEG be a set of degrees by the relation  $\leq$ ,

then  $\max(\text{DEG}) = \lambda d [d \in N \wedge \forall d' \in \text{DEG} [d' \leq d]]$ .

이 최대항 연산자 max는 정도치 집합 DEG를 취해서 그 집합 중에서 다른 모든 정도항 d'보다 크거나 같은 정도항 d를 내어주는 기능을 한다. 이 정도치 집합을 그대로 숫자 집합으로 옮겨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max 연산자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36) Let N be a set of natural numbers by the relation  $\leq$ ,

then  $\max(N) = \lambda n [n \in N \wedge \forall n' \in N [n' \leq n]]$ .

이 과정에서 등치의 서술의 우측 항을 이루는 지시체는 모형에서 주어지거나 담화상에 화용적으로 제한된 영역에서 불러오게 되어 있다. 따라서 (20'b)의 등치 서술은 격자 담화 구조중 'I'를 지시하는 원소를 사용하게 된다. (21'b)의 초점이 의뢰하는 담화 영역은 다음과 같이 자연수의 집합이 되고  $\max(\lambda n (\text{I had } n\text{-number-coins}))$ 는 'I had n-number coins'를 만족시켜주는 최대의 n을 내어주게 된다.

(41b')  $N = \{0 \leq 1 \leq 2 \leq 3 \leq 4 \leq 5, \dots\}$

집합 N의 한 원소인 2가 이 최대항이자 조음사의 정체를 밝혀 주는 일을 하기 위해 선택되어 등치 서술을 하는 것이다. 이 영역 N에서 전제된 조음사 n과 같은 값의 항으로 2가 선택되면 그것이 1이나 3과는 같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정확히' (exactly)의 의미를 내주게 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초점의 의미 구조와 적절한 영역 구조를 가지고 (8), (9)의 진리 조건의 차이 뿐만 아니라 (20b)와 (21b)의 진리치의 차이, 완전성의 의미를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sup>14</sup>

<sup>13</sup> 'exactly'에 대한 여러 다른 의미 해석에 대해서는 Kadmon(1990), Horn (1992), Landman (1998) 등을 참조.

<sup>14</sup> 이예식 (2000)에서 논하는 I had at least two/at most two coins와 같은 경우는 다음의 의미 구조를 얻게 된다.

$\max(\lambda x (\text{had } (I, x \text{ coins}))) = \text{at least } 2$

**4.2.2 화용적 조건.** 위의 절에서 초점의 새 지시체가 선택되는 담화 영역은 격자 구조를 이루어야 하고 수의 집합은 순서화 (ordered) 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보았다. 이와 같은 의미적 모형의 조건 외에 화용적 조건에 대해 보자.

먼저 위의 (31)의 모형과 같은 경우에 담화 영역 D에 Bill 한 사람만이 있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초점 문장을 발화한다고 하자.

(37) Who came? BILL came.

이런 경우는 마치 ‘다음 보기에서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라는 질문을 하고 보기에 한 개의 항목만을 제시하고, 그 항목을 골라 대답하는 경우와 같은데, 이런 경우 질문도 대답도 사소 (trivial)하고 무의미하게 된다. 그러므로 담화 영역 안에 초점화된 항목 말고 다른 항목이 적어도 하나는 더 있어야 한다는 화용적 조건을 만족시켜야 할 것이다. 어차피 모형에서 영역은 주어지는 것이고, 초점이 개체 유형에 주어졌을 때는 개체들의 집합의 영역을 고려해서 초점항목을 선택하고, 초점이 다른 유형, 예를 들어, 동사나 서술어 전체에 주어졌을 때는 자질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의미 영역에서 초점항목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sup>15</sup> 단지 이때의 담화 영역은 모형에서 주어진 상태를 그대로 쓰지 않고 화용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담화 영역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있지만 이러한 담화 영역에 대한 화용적 제한은 초점 현상에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 2.1에서 양화사 every의 경우에서도 논의 했듯이 일반적인 언어 현상이기에 여기에서 초점 이론의 일부로 논의할 필요는 없겠다.

### 4.3 결론

4절에서는 3절에서 요약 소개된 Wee (1999, 2001)의 초점 분석 방법을 받아 들여 여기서 필요로 하는 초점구문이 도입시키는 두 개의 담화 지시체가 무엇인가를 확인했다. Wee (1999, 2001)에서는 그 중에 하나는 전제된 조음사이고 다른 하나는 조음사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등식의 서술을 위한 항목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후자의 지시체는 모형에서 주어진 담화 영역에서 선택하면 된다는 사실을 보

$$\max(\lambda x (\text{had } (I, x \text{ coins}))) = \text{at most } 2$$

이는 다시 쓰면, 이미 전제된 동전의 숫자를 밝히는 단언의 의미가 정확한 숫자로서가 아니라 상위 한계 (upper limit) 혹은 하위 한계 (lower limit)의 정보를 주는 것으로 대신하는 대답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부등식으로 귀결된다.

$$\max(\lambda x (\text{had } (I, x \text{ coins}))) \geq 2$$

$$\max(\lambda x (\text{had } (I, x \text{ coins}))) \leq 2$$

이 예문을 초점의 완전성에 대한 반례로 들었다. 그러나 전제 의미는 한정 용법의 특정성의 의미로 완전성의 의미를 다른 경우와 일관되게 지니고 있고 단언 부분이 한 숫자가 아니라 범위로 주어져서 완전성의 의미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날 뿐이다.

<sup>15</sup> 모형에서 주어진 초점의 연산을 위한 영역 (domain)이 담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 담화에 관련된 영역으로 축소 조정되는 경우는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양화사의 연산을 위해서도 항상 일어난다. 예를 들어 We ate hamburgers. And everybody got sick.에서 ‘everybody’가 양화하는 영역은 결코 이 우주 전체의 개체들이 아니라 주어진 맥락에 따라 변화된 영역이라는 사실은 새삼 논의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다양한 양화 표현을 위한 영역의 화용적 제한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Roberts (1995)를 참조.

았다. 그러므로 초점을 위한 지시체는 이미 모형에서 주어진 영역 집합 중에서 나오기 때문에 초점 구문을 위하여 새로운 대체 집합을 생성시킬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 분석이 초점과 관련된 다른 현상들, 진리 조건의 영향, 수 표현에 오는 ‘정확히’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도 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 방법을 사용하면, 초점의 의미론적 분석을 위해서 대체의미론 (Alternative Semantics)에서와 같이 모형에서 주어진 영역 이외에 초점 구문이 별도로 생성시켜서 초점의 연산과정을 위해 초점이 발생하는 문장의 의미의 일부로 불러들이는 여러 가지 유형의 대체집합 (alternative set)은 필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초점 현상에 동반되는 해석들, 특히 2절에서 논의된 독립 문장에서 내재하고 있는 초점의 의미적, 혹은 진리 조건적 역할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대체 의미론에서 설정한 대체 집합의 역할은 충분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대체 의미론에 대한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1) 대체 의미론에서 초점 의미의 본질로 설정하는 영역집합인 대체 집합이라는 개념은 초점현상에서만 고유하게 발생하는 의미적 개념으로서 초점현상의 설명을 위하여 일반 의미론을 복잡화시켜야 하는 비용을 감수한다는 비경제성을 관찰했다. (2) 대체 의미론은 대체 집합으로 인한 초점 의미(semantics)의 일부로 도입시키는 대체 집합에 대해서 문장 외적 요소나 다른 운용소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존재가 드러나지만 독립 문장 내부에서는 그 의미적 존재를 거의 부정하는 입장의 모순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Wee (1999, 2001)의 초점 분석을 받아 들였다: 첫째, 초점문이 겉으로 드러난 통사적 구조와는 다른 숨겨진 의미 구조의 변화를 일으켜서, 비초점 구문에 해당하는 전제 의미는 의미적 주부 (semantic subject)에 해당하고 초점 구에 해당하는 단언의 의미는 의미적 술부 (semantic predicate)에 해당하는 의미구조를 갖게 된다. 둘째, 전제 의미에 해당하면서 이전 담화를 조용하는 비초점 구문의 의미는 전통적인 한정 표현의 의미로 얻어지고, 초점구에 해당하는 단언의 의미는 전제된 한정 표현의 정체를 구현해 주는 서술어로서 등치 함수 (identity function)로 표현되었다. 이와 같은 기존 논문의 분석을 받아 들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전제된 조용적 지시체와 초점화된 지시체와의 정체의 동일성을 단언하는 과정에서 초점화된 지시체가 선택되어 나오는 집합은 다름 아닌 모형에서 주어진 영역이라는 사실을 보였다. 즉, 모형의미론의 기본인 모형 안에서 주어진 담화 영역 (discourse domain)의 적절한 영역 구조 (domain structure)를 활용해서 초점의 의미를 다른 특정한 의미적 개념을 도입함이 없이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 때의 적절한 영역 구조는 Link의 격자 구조와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화용적 척도로 나열된 영역구조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이 초점 현상의 설명을 위해서 의미론을 복잡화시킬 필요가 없이 기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동적 모형 의미론적 기재만

으로도 초점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경제적 이론임을 보일 수 있었다.

둘째, 주요 초점 이론들이 간과하는 자유 초점과 관련된 진리 조건적 영향으로 인한 현상을 규명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진리 조건의 차이, 수량 표현에 초점이 올 때 나타나는 ‘정확히’의 의미, 일반적으로 초점 현상과 더불어 논의되는 완전성의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었다.<sup>16</sup>

본 논문에서는 초점 중에서 한 가지 종류의 초점에만 국한시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대조 주제를 나타내는 초점 등과 같은 다양한 초점의 담화 영역의 구조와 조건을 밝히는 일이 앞으로 본 논문의 결과를 발전시키며 추구할 방향이다.

#### <참고문헌>

- 이예식. 2000. 한국어에 있어서 초점의 종류와 초점사. *2000년 한국어언어정보학회 여름 학술 대회 학회 논문집*, 12-29. 한국어언어정보학회.
- Bolinger, D. 1958. A theory of pitch accent in English. *Word* 14, 109-49.
- Chomsky, N. 1971. Deep structure, surface structure and semantics interpretation, in D. Steinberg and L. Jakobovits (eds.). *Seman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83-216.
- . 1976. Conditions on rules of grammar. *Linguistic Analysis* 2, 303-51.
- Cresswell, M. J. & A. von Stechow. 1982. De re belief generalized. *Linguistics and Philosophy* 5.4, 503-35.
- Dretske, F. 1972. Contrastive statements. *Philosophical Review*, pp. 411-37.
- Geurts, B. 1998. The Mechanisms of Denial. *Language* 74, 274-30.
- Groenendijk, J. & M. Stokhof. 1992. A note on Interrogatives and adverbs of quantification, in Baer, C. et al. eds. *SALT* 2, pp. 1-30. Ohio State University.
- Hajicova, E., B. H. Partee & P. Sgall. 1998. *Topic-Focus Articulation, Tripartite Structures, Semantic Content*.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Hamblin, C. L. 1973. Questions in Montague grammar. *Foundations of Language*, 41-53.
- Hausser, Roland. 1976. The logic of questions and answers. manuscript. München.
- Herburger, Elena. 1998. Presupposition vs. Assertion: A Davidsonian Account, in E. Benedicto, M. Romero and S. Tomioka eds. *Proceedings of Workshop on Focus*. GLSA.
- Horn, L. 1992. The said and the unsaid, in C. Barker and D. Dowty eds., *SALT* 2, pp. 163-92. Ohio State University.

<sup>16</sup> 본 연구의 관심 대상을 자유 초점 (free focus)에 국한시켰으나 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이론적 틀은 결속 구문의 초점 (bound focus)으로 확장시켜 적용할 수 있다. 이 확장 방법은 Jacobson이나 Krifka가 자유 초점의 단언 기능을 단언 운용소 (ASSERT operator)라는 언표외적 초점사를 설정해 다른 초점사 (focalizer)와 대등한 초점사로 취급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취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Wee (2003)에서 논의한 바가 있고 계속 연구 중이다.

- Jackendoff, R. 1972. *Semantics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 MIT Press.
- Kadmon, N. 1990. Uniqueness. *Linguistics and Philosophy* 13.
- . 2001. *Formal Pragmatics*. Blackwell Publishers.
- Kiss, E. K. 1981. Structural relations in Hungarian, a “Free” Word Order Language. *Linguistic Inquiry* 12, pp. 181–2.
- . 1998. Identificational focus versus information focus. *Language* 74, 245–273.
- Landman, F. 1998. Plurals and maximalization, in S. Rothstein ed. *Events and Grammar*. Kluwer.
- Lambrecht, K. 1994. *Informational Structure and Sentence Form*. University Press, Cambridge.
- Link, G. 1983. The Logical Analysis of Plurals and Mass Terms: a Lattice-Theoretic Approach, in R. Bauerle, C. Schwabe and A. von Stechow eds. *Meaning, Use and the Interpretation of Language*, pp. 302–23. Berlin. de Gruyter.
- Partee, B. 1991. Topic, Focus and Quantification. *SALT 1*. Cornell University.
- Peregrin, J. 1995. Topic and Focus in a Formal Framework, in B. Partee & P. Sgall eds. *Discourse and Meaning: Papers in Honor of Eva Hajicova*. John Benjamin.
- Roberts, C. 1995. Domain restriction in dynamic semantics, in E. Bach, E. Jelinek, A. Kratzer, & B.H. Partee eds. *Quantification in Natural Language*. Kluwer.
- Rooth, Mats. 1985. *Association with Focu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dissertation.
- . 1992. A Theory of Focus Interpretation. *Natural Language Semantics* 1, 75–116.
- . 1996. Focus, in S. Lappin ed., *The Handbook of Contemporary Semantic Theory*. Blackwell.
- Rullman, H. 1995. *Maximality in the Semantics of Wh-Construction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dissertation.
- Russell, B. 2005. On Denoting. *Mind* 14, 479–93.
- Szabolcsi, A. 1981. The Semantics of Topic-Focus Articulation. in Jeroen Groenendijk, Theo Janssen, and Martin Stokhof eds. *Formal Methods in the Study of Language*, pp. 513–40. Mathematisch Centrum.
- Scha, R. 1983. *Logical Foundations for Question Answering*. University of Groningen dissertation.
- von Stechow. 1981. Topic, focus and local relevance, in W. Klein and W. Levelt eds. *Crossing the Boundaries in Linguistics*. Reidel.
- Tichy, P. 1978. Questions, answers and logic.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15.
- Zubizarreta, M. L. 1998. *Prosody, Focus and Word Order*. The MIT Press.
- Wee, Hae-Kyung. 1999. *Definite Focus*. University of Groningen dissertation.
- . 2001. *Sentential Logic, Discourse, and Pragmatics*. Indiana University dissertation.

\_\_\_\_\_. 2002. Exhaustivity of focus.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27.4.

\_\_\_\_\_. 2003. Propositional content of a sentence with a narrow focus. presented at KASSELL conference 2.

접수 일자: 2004년 5월 10일

게재 결정: 2004년 6월 4일